

효과적인 설교 스타일에 대한 연구: 네 페이지 설교, 갈등에서
해결로서의 설교, 플롯과 움직임 설교를 중심으로

조성우

목차

- I. 들어가는말: 우리는 왜 설교형태에 주목하는가?
- II. 기독교 설교 역사에 대한 개략적 고찰: 설교 형태(Style)를 중심으로
- III. 설교 형태에 따른 장단점: 고전적 그리고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
- IV. 효과적인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향하여: 네 페이지 설교(Four Pages of the Sermon), 갈등에서 해결로서의 설교(Preaching from Oops to Yeah), 플롯과 움직임 설교(Sermon as Plot and Moves)를 중심으로
- V. 실천적 단계: 설교적 적용 및 실제적인 예시
-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왜 설교형태에 주목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창 1:3).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온 만물은 창조되었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즉 성경(聖經)을 통하여 특별히 계시되었다. 세세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보게되었고, 성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종말론적인 삶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양한 형태(Form)와 장르(Genre)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방식에만 국한되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와 장르를 적극 활용하여 다채롭고도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리적 내용을 연역적 형식(Deductive style)으로 명제적으로 잘 전달하는 레위기의 경우나 또 귀납적인 형식(Inductive style)을 빌어 메시지의 충격을 더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비유(Parable)와 이미지(Image)를 잘 활용하여 청중들의 마음가운데 메시지가 깊이 새겨지게 하는 일부 복음서의 설교나 또 이야기(Story)와 내러티브(Narrative) 구조를 활용하여 말씀의 현장성을 더 현재적으로 구현, 흥미진진하게 독자들에게 경험케 하는 등과 같은 예이다. 때로는 시가서(Poetry)처럼 인간의 깊은 내면적 고통과 환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감성을 기도하는 형식으로 표출함으로서 땅의 소리와 하늘의 세계가 서로 극적으로 부딪히게 만든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다양한 형태들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설교자들이 기존의 일부 형태(Style)만을 소위 설교 그 자체로 인식, 절대적으로 고집하거나, 효과적이고 다양한 설교 형태에 대한 고민과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될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개신교 초기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었던 당시의 일부 설교방식과 그것만을 정통으로서 지켜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¹ 일례로, 한국 최초의 설교학 교수였던 콕안런 박사(Charles Allen Clark)의

¹ 김운용은 “이것은 반드시 한국 설교자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는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리차드 리셔(Richard Lischer)의 주장 즉 “현대 설교자들은 과거의 설교자들로부터 설교 스타일에 있어서는 빈궁하게 된 이해(impovertised notion of style)을 물려받았다”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는 말하길 “설교 형태가 가지는 역동성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과될수 없는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에게 외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자는 설교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형태에 고착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설교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의 형태를 사용하느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천편일률적인 형식에 고착되는 것은 적당치않다”라고 주장한다. 김운용, 『현대설교요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213.

『설교학』이라는 책을 통해 당시 1900년대 초기 한국 기독교안에서 가르쳐왔던 설교형태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는 설교의 형태를 세 가지 즉 본문설교, 제목설교, 해석설교에 한정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설교 분류의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는 본문의 사용법에 의한 본문설교, 제목설교, 해석설교 등이다. 제목설교는 본문에서 주제, 제목만을 취한 것이요, 본문설교는 제목과 대지까지 본문에서 나온 것이다. 해석설교는 제목, 대지, 소지의 거의 전부가 본문에서 나온 것이다.”²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듯이 다양한 형식을 통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실천보다는, 다소 설교자 중심적인 혹은 설교자의 익숙함에 잇대인 설교형식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풍성하고 효과적일수 있는 현대설교사역을 어느정도 제한해오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교사 등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현대 강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설교적 노력들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는 기독교 설교 역사속에서 초기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설교 형태들로부터 다양한 현대 설교 형태들까지 그 설교적 노력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 설교형태들과 현대적 설교형태들 각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과 약점들을 함께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관점에서,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현대적 설교 형태들 중 세가지 정도의 효과적인 설교 스타일(네 페이지 설교, 갈등에서 해결로서의 설교, 플롯과 움직임 설교)에 주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서, 그 실제적인 예문들과 함께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해볼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II. 설교 역사에 대한 개략적 고찰: 설교 형태론(Style)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클레멘트의 제 2 서신(*The Second Epistle of Clement*, AD 95–140)은 단순 서신이나 편지가 아닌, 설교문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현존하는 첫 설교 사료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별히 그 설교문의 형태를 살펴볼때, 기본적으로 회중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 여러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호소하고 간곡히 훈계하는 패턴을 따른다. 즉 청중들에게 본문을 다시

²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57. 이후 저자가 주해설교와 예증설교를 언급하긴 하지만 설교형태론적 입장에서 이 주해설교는 저자의 해석설교와 동일한 형태의 다른말이고, 또 예증설교는 설교기자재들과 관련된 이야기임으로 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운용 역시 “한국교회는 이러한 (전통적) 설교의 형식을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소개받은 이후 마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왔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운용, 『현대설교코칭』, 225.

들러주고(Rereading), 해석하여(Expositing), 그것에 대한 적용(Applying)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회당(Synagogue)에서 이루어졌던 설교방식과 다소 유사하지만, 본문을 율법서에서 뿐만 아닌, 예언서와 복음서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³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초기 기독교의 교부 오리겐(Origen of Alexandria)의 설교 역시 살펴보면, 그는 뛰어난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을 주해를 하는 방식을 따른다. 또한 대부분의 설교들이 논리적이거나 특정 수사학적 패턴을 따르기 보다는 한구절 혹은 한문단을 해석하는 설교형태(Verse-by-verse or phase-by-phase)이며, 적용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사용하여 회중들에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적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설교형태가 중세시대까지 기독교 설교의 중요한 강론 방식중의 하나로 이어져왔다고 주장한다.⁴ 또한 시릴(Cyril of Jerusalem)이나 암브로시우스(Ambrose of Milan)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당시 기독교의 교리나 신비를 설명하는 교리 설교(Catechetical sermon)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⁵ 소위 황금의 입으로 불리우던 크리소스토ム(John Chrysostom)의 설교들 역시 성경과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의 설교 또한 그의 요한복음, 시편, 그리고 요한 1 서 등의 설교문들 살펴보면 역시 강해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수 있다.⁶

중세에 이르러, 이성(Reason)을 강조하던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설교를 살펴보면, 소위 대학설교 (University sermon)로 알려진 설교형태의 초기모습 보여주는데, 주제 요점에 따른 하위 포인트들의 세분화를 바탕으로 연역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성경의 한 구절 혹은 특정 주제들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다른 구절들로 연결, 발전, 뒷받침하면서 이를 통해 형성된 교리적 의미를 회중들에게 전달한다.⁷ 이후 중세후기 프란시스칸(Franciscans) 그리고 도미니칸(Dominicans) 설교자들에 의해 이러한 대학설교 형태가 보다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데, 세 개의 설교 포인트, 두 개의 유머, 하나의 시를 포함한 고전적 설교형태를 보여준다.⁸

이후 종교개혁시대 루터(Martin Luther)의 설교들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앞선 일부 교부들의 설교들(Patristic homilies)처럼 다소 고정된 패턴을 보여주지는

³ Hughes Oliphant Old,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1: The Biblical Period*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Lightning Source, 1998), 278-284.

⁴ O.C. Edwards Jr.,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2004), 27-48.

⁵ Old,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2: The Patristic Age*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Lightning Source, 1998), 3-31.

⁶ Old,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2: The Patristic Age*, 171-218 and 344-368.

⁷ Paul Scott Wilson, *A Concise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92), 78-85.

⁸ O. Wesley Allen Jr.,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in *The Renewed Homiletic*, ed. O. Wesley Allen Jr.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2010), 1-18.

않지만, 주해과정속에서 그가 중요하게 발견한 중심의미(Sinnmitte), 중심포인트(Herzpunkt)를 강해적(Expository) 혹은 주제적(Thematic) 전개방식으로 전달한다.⁹ 그는 문자적 해석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바탕으로 고정되거나 정형화된 패턴없이 설교적 메시지를 선포한다.¹⁰ 이에 비해 칼빈(John Calvin)은 전형적인 강해설교자로서, 성경 주해를 통한 신자들의 교리 교육에 깊이 주목한다.¹¹ 그의 일반적 설교형태는 기도, 지난 설교에 대한 요약, 본문에 대한 두개 정도의 주해, 적용과 순종을 위한 훈계, 기도를 위한 마지막 요약이라는 설교 형태를 보여준다.¹²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The Puritans), 특히 영국의 첫 번째 설교학 메뉴얼인 ‘설교의 기술(The Arte of Prophecyng)’을 저술한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를 형태론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칼빈의 설교형태를 보다 더 심플하게 일반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에 대한 주해(Exposition), 교리(Doctrines), 그리고 적용(Application)이라는 구조를 보여준다.¹³ 윌슨(Paul S. Wilson)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는 명료한 설교 형태(Plain style preaching)로 불리우며, 이후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존 웨슬리(John Wesley) 등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에 영향을 미쳤다.¹⁴ 설교학자 알렌(O. Wesley Allen, Jr.)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주제설교와 강해설교 즉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3 대지로 전개되는 소위 대학설교(University sermon)의 형태와 강해를 중심으로 주해-교리-적용의 명료한 설교 형태(Plain style preaching)가 서구 기독교 설교 형태의 대부분을 지배해왔다고 말한다. 특히 이 두가지 설교 스타일은 연역적인 논리전개와 명제적 설교 방식을 그 주요 전달 구조로 사용해왔다.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중반까지 여러 신학교에서 주요 설교학 교재로 사용되어 온 존 브로더스(John A. Broadus)의 ‘설교준비와 전달에 관하여(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1870)’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⁵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와같은 고전적 설교 방식만이 점점 정형화되고 절대화되는 가운데, 급속히 변화하는 오늘날의 청중들과 그들의 실존적 상황속에서

⁹ Edwards, *History of Preaching*, 295-296.

¹⁰ Wilson, *A Concise History of Preaching*, 94-98.

¹¹ Old,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4: The Age of the Reformation*, 90-94.

¹² Wilson, *A Concise History of Preaching*, 101-106; Edwards, *History of Preaching*, 316.

¹³ Richard Lischer, *The Company of Preachers: Wisdom on Preaching, Augustine to the Present* (Grand Rapids: Eerdmans, 2002) 298-304; Old,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4: The Age of the Reformation*, 260-269. 일례로, 그의 설교문인 The First Branch(Matthew 5:3-12)를 살펴보면 이러한 그의 ‘성경주해-교리추출-적용’이라는 설교형태를 잘 확인할수 있다.

¹⁴ Wilson, *A Concise History of Preaching*, 122-137; Edwards, *History of Preaching*, 478. 하지만 웨슬리의 설교형태는 주해에 집중하는 강해적 설교가 아닌, 본문과 연관된 교리 (혹은 주제)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주제설교에 가깝다. 그는 일반적으로 세절 이내의 짧은 설교본문 바탕으로, 서론에서만 조금 주해를 진행하거나 아예 하지않는 스타일을 보여준다. 즉 짧은 본문을 바탕으로 관련된 교리 (혹은 주제), 그리고 적용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설교 스타일을 보여준다. Wilson, *A Concise History of Preaching*, 132-137.

¹⁵ Allen,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3-4.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회중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이자 상담설교로 잘 알려진 해리 포스딕(Harry E. Fosdick)은 1928 년 ‘설교에 문제가 무엇인가?(What Is the Matter with Preaching?)’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오직 설교자들만이 사람들이 성경의 여부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교회에 온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그는 설교가 자칫 지루해질수 있는 정형화된 강해나 주제방식을 거부하며, 오늘날 청중들의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신학적, 실존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브라운(R. E. C. Browne) 역시 1958 년에 그가 출판한 ‘말씀의 사역(Ministry of the Word)’에서, 복음은 미리 정해진 명제(세가지 요점)이나 강해적 형식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본문에 표현된 계시의 형태와 관련되어 효과적으로 선포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헨리 데이비스(Henry G. Davis)도 그의 저명한 설교학 저서인 ‘설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Preaching)’에서 기존의 삼대지 설교처럼 하나의 수사학적 형식만을 따르도록 절대화하고 강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각 설교에는 설교 내용에 알맞는 효과적인 형식과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설교 형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1965 년 데이빗 란돌프(David J. Randolph)는 기존과 대비되는 새로운 설교학(New Homiletic)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는데, 그 개략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설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교를 논증, 전달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로운 설교학은 보다 더 청중에 대한 관심 즉 오늘날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지, 즉 그들의 언어, 의식, 경험, 수사방식 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둘째, 따라서 다소 고착화된 명제적이고 연역적 스타일을 벗어나, 단편소설이나 영화 등처럼 현대 회중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접근할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즉 귀납적인 전개, 네러티브, 플롯방식 등 다양한 메시지 전달 형식들에 주목한다. 셋째, 또한 명제적이고 지시적이며, 정보전달식의 설명적 언어보다는, 비유적인 언어, 은유, 이미지 사용 등의 다양한 언어 사용을 통해 청중들이 보다 더 말씀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하는것에 초점을 둔다.¹⁶

이러한 배경속에서, 다양한 설교 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는데, 찰스 라이스(Charles L. Rice)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설교자들 모두 효과적인 스토리텔러(Storyteller)였음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청중들에게 효과적인 설교형태로서 이야기방식(Story sermon)을 제안한다. 그는 효과적인 설교란 텍스트가 단순히 언급되고 설명되는

¹⁶ Ibid., 4-10. 알렌에 따르면, 이러한 신설교학 태동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들이 존재하는데, 20 세기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등을 통한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명명하는 것이 아닌 실재를 구성한다는 개념의 언어학적 전환, 20 세기 중반 볼트만(Rudolf Bultmann)의 실존주의적 성경 해석과 그의 영향을 받은 폭스(Ernst Fuchs)와 에벨링(Gerhard Ebeling)의 언어의 사건성(Word event)을 강조하는 신해석학(New Hermeneutic)의 출현, 다양한 미디어와 그 전달방식 따라 메시지, 지식, 논리도 다르게 작용한다는 맥루한(Marshall McLuhan)과 옹(Walter Ong)의 문화적 연구, 1960,70 년대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권위와 기존의 설교 메시지의 적합성에 도전 등이 있었다. Ibid. 5-7.

것이 아닌, 개인과 개인, 설교자와 공동체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 연결해줄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일수 있다고 본다.¹⁷ 헨리 미셸(Henry H. Mitchell)은 기존의 백인중심의 강해 설교에서 다양한 문화들 특히 아프리카 문화를 포용하며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일수 있는 방법인 축제로서의 설교(Celebration in Black preaching)를 이야기한다. 앞선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리텔링(Retelling)을 바탕으로 보다 더 회중적 언어(Fork language)를 통해 점층적으로 복음적 메시지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축제적으로 선포되는 구조를 보여준다.¹⁸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기존의 연역적이고, 지시적인 설교접근이 아닌, 귀납적 방식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설교적 패러다임을 제안한다.¹⁹ 회중들의 현실과 삶의 공동기반 경험들로부터 시작된 설교 여정은 이제 보편적 진리, ‘아하(Aha!)’ 포인트를 향해 귀납적 움직임을 통해 나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²⁰ 시간적 구성의 이야기식 설교와는 달리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는 문제와 해결중심의 플롯전개를 통해 회중들에게 효과적인 설교에 관심을 가지며, 그의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을 제안한다.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갈등(Conflict)의 단계로 부터 시작되어 심화/복잡화(Complication)의 과정을 거쳐, 급격한 변화/반전(Sudden Shift)을 통해 복음을 경험, 해소/밝혀짐(Unfolding)으로 마무리 되는 설교 방식을 보여준다.²¹ 데이빗 버트릭(David Buttrick)은 기존의 설교자중심의 전달방식에서, 오늘날 현대 청중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설교를 들을때 실제 회중의 의식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현상학적 방식(Phenomenological method)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4-6 개의 설교 움직임들(moves)을 사용하여 설교의 최종 지향점인 ‘아하(Aha!)’ 포인트를 향하여 집약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소개한다.²² 이외에도 설교형태론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네 장면으로 이어지는 설교(Paul S. Wilson), 작가가 소설을 전개하는 식의 설교(Jana Childers), 본문의 형식을 따라가는 설교(Alyce McKenzie),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식의 설교(Barbara K. Lundblad), 성경인물 중심적 설교(Ella Pearson Mitchell), 조각그림 맞추기식의 설교(Joseph R. Jeter, Jr.) 등의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²³

¹⁷ Charles L. Rice, “The Preacher as Storyteller,”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1, no. 3 (Spring 1976), 182-197; Charles L. Rice, “The Preacher’s Story,” in *Preaching the Story* coauthored by Edmund A. Steimle, Morris J. Niedenthal, and Charles L. Ric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9-36.

¹⁸ Henry H. Mitchell, *Bla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178-195; Allen,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11-12.

¹⁹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Revised and with New Sermon*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01), 43-125.

²⁰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94-201.

²¹ Eugene L. Lowry,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81.

²²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24-328.

²³ 로날드 알렌/ 허정갑 역, 『34 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123-222.

III. 설교 형태에 따른 장단점: 고전적 그리고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

김운용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설교의 목적과 그 전개방식에 따라 크게 전통적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교로 구분한다. 그는 기독교 설교역사속에서 강해설교, 주제설교, 대지설교 등과 같은 고전적 방식들을 전통적 설교 패러다임으로, 귀납적 설교, 네러티브 설교, 네 페이지 설교 등의 현대적 방식들은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전통적 형태들과 새로운 형태들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설교적 특징들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⁴

전자는 주로 주제, 혹은 명제를 설명, 혹은 해설하는 것과 강해, 혹은 예증의 형식과 같은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논리적, 명제적, 논증적, 연역적 특성을 가지는 설교형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해설과 논증을 통하여 진리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행해진다. 후자는 주제, 혹은 설교의 중심 명제가 드러나는 그 지점을 향하여 집약적으로 움직임을 만들면서 회중과 설교자가 함께 설교 여정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취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상상력, 이야기, 메타포, 이미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귀납적 구조를 통해 청중들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하게 된다.²⁵

고전적 설교 방식은 대체적으로 명제적이고 연역적인 설교 구성을 통해 성서와 신학적 주제, 교리 등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이어지는 하부구조를 통해 그에 대한 논거, 예증, 세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보다 더 설득력있는 분명한 이해를 갖게한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이성과 논리적 접근을 중시하는 청중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설교 방법이라 평가된다. 또한 교리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설교, 즉 제한된 시간내에 다수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는 탁월한 설교 방법이라 할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약점들도 지적되는데, 자칫 익숙한 청중들에게 반복되는 설교 패턴으로 인해 설교시간 자체가 지루함이 되거나, 혹은 두뇌공학적 관점에서 다분히 논리적이고 정보전달적인 자뇌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인해, 현대의 회중들에게 중요한 우뇌적 차원 즉 감성적, 상상적, 예술적 영역을 효과적으로 터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즉 어떻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들려지고 경험되게 할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이

²⁴ 김운용, 『현대설교코칭』, 217-218.

²⁵ Ibid., 218. 특별히 설교 형태론적 입장에서 강해설교와 네러티브 설교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들과 지속적인 논의들을 위하여 다음을 참고할수 있다. 정재웅, “강해설교와 네러티브 설교의 이분법을 넘어서: 최근 북미현대설교학을 중심으로,” 『제 36 회 한국설교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2023), 36-49.

있기에 자칫 드라이한 정보전달(Transmit)로 끝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²⁶ 마지막으로 설교자와 그 가르침의 권위를 강조하는 가운데, 성경의 권위와 설교자의 권위를 혼동하여 종종 설교자가 말씀의 주체가 되어버리거나, 회중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적이면서 시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도 빈번한 설교현상에서 발견된다.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어떻게하면 회중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야기, 네러티브, 귀납적 움직임 등을 사용하여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설교의 여정을 떠나는 구조를 취한다. 이를 위해 정답을 먼저 제시하던 전통적 설교방식과는 달리 열린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설교적 움직임들과 우뇌적인 접근들 즉 이미지, 상상력, 메타포 등의 활용을 통하여 복음적 메시지를 보다 더 생생히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둔다.²⁷ 따라서 이러한 접근의 강점은 다소 탈권위주의적이며, 청중들에게 비교적 지루하지 않으면서 흥미롭게 말씀의 세계를 점차적으로 펼쳐갈수 있다는 점과, 회중들의 우뇌적 요소들 즉 감성적, 감각적, 상상적 영역 등을 효과적으로 터치하며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대 회중들에게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반영한 다양한 설교형태의 발전은 회중들에게 보다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중요한 설교적 노력이 될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귀납적 움직임, 네러티브전개, 열린결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에게는 자칫 이질감과 메시지의 모호함 초래할수 있다는 점과, 신설교학의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예를 들면 이야기식 설교를 성경 본문과 무관한 만담적 설교로 만들어버리는 등과 같은 오류를 범할수도 있다. 또한 캠벨(Charles Campbell)이 지적하듯이 성경 본문과 복음, 그리고 신앙공동체 보다는 인간 개개인과 그들의 경험에

²⁶ Ibid., 223-226.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설교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1) 설교자의 권위가 강조됨으로써 설교자의 고유한 권위가 간과될 수 없다는 점; (2) 설교자의 자율성을 강조함에 따라 초신자부터 모든 청중이 스스로 설교 메시지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3) 설교에서 성경보다 혹 인간의 경험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 (4) 설교 형식의 다양화가 메시지의 선명성과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²⁷ 김운용, 『현대설교코칭』, 223-226.

²⁸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Eugene: Wipf & Stock Publishers, 2006), 117-145. 또한 신설교학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1) 청중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설교자의 고유한 권위가 간과될 수 있다는 점; (2) 청중의 자율성을 강조함에 따라 초신자부터 모든 청중이 스스로 설교 메시지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3) 설교에서 성경보다 혹 인간의 경험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 (4) 설교 형식의 다양화가 메시지의 선명성과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복미 설교학계에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기도 하는데, 양극단에서 상호배타적이었던 복음주의, 주류 설교학자들이 이제는 전통적 설교방식들과 새로운 설교방식들의 각각의 강점을 취하고, 약점은 보완하여, 보다 더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²⁹

IV. 효과적인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향하여: 네 페이지 설교(Four Pages of the Sermon), 갈등에서 해결로서의 설교(Preaching from Oups to Yeah), 플롯과 움직임 설교(Sermon as Plot and Moves)를 중심으로

1) 네 페이지 설교(Four Pages of the Sermon)

설교학자 윌슨(Paul S. Wilson)은 설교 작성에 있어 특별히 신학적 양극성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율법과 복음, 심판과 은혜, 성금요일과 부활, 십자가와 빈 무덤, 옛 시대와 새 창조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³⁰ 이러한 신학적 양극성을 바탕으로, 가나 혼인잔치(요 2:1-12)를 설교 본문의 예시로 사용하여 그가 제시하는 설교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

본문에 대한 율법의 관심들 (Law concerns of the text)	본문에 대한 복음의 관심들 (Gospel concerns of the text)
참석은 초대에 의한 것이었다. (Attendance was by invitation.)	예수님께서 그 혼인예식에 계셨다. (Jesus was at the wedding.)
준비는 불충분하였다. (Preparation was inadequate.)	물이 포도주가 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Water into wine is God's work.)

(5) 다섯째, 교회 공동체로서의 청중보다는 개별 청중 중심의 설교 패러다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조광현, “신설교학: 개별 청중으로 방향 전환,” 『갱신과 부흥』 31 (2023), 307-316.

²⁹ 정재웅, “강해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의 이분법을 넘어서,” 49-56.

³⁰ Paul Scott Wilson, *Imagination of the Heart: New Understandings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91-142. 이러한 율법과 복음(Law and gospel)의 양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설교적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가 있다고 치면, 설교는 동그라미의 가장 꼭대기에서 시작되어 오른쪽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율법 혹은 심판(Law and judgment)이라는 영역에 도달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설교는 동그라미의 가장 밑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는 데 이곳이 바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자각(The depth of our awareness of sin)이 가장 깊은 곳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역설적으로, 이 동그라미의 가장 낮은 단계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반전 포인트(Reversal point)가 되며, 이곳을 기점으로 설교는 다시 왼쪽으로 상향곡선을 그리며 위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Gospel and grace)가 세상을 전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교적 움직임이 윌슨의 설교신학의 구조이다. Ibid., 121-123.

부재가 발견되었다. (The absence was noticed.)	예수님과 함께라면 축제는 끝난것이 아니다. (With Jesus present the celebration does not end.)
손님들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The guests ran out of wine.)	예수님은 축제의 편에 서 계신다. (Jesus is on the side of celebration.)
예수님은 무관심해 보이신다. (Jesus appears indifferent.)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드러내신다. (Jesus reveals himself.)

<표 1>³¹

이러한 설교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율법으로 바꾸어 쓰기 (Transposing Law)	
T (본문에 대한 관심)	그 준비들은 불충분 했었다.
S (설교에 대한 관심)	우리의 준비들은 때때로 불충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경험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까? 우리는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이 준비 없음의 비극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T (본문에 대한 관심)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S (설교에 대한 관심)	우리의 좋은 시절 또한 다 끝나갈 때가 있습니다.
T (본문에 대한 관심)	포도주의 부재는 주목되었습니다.
S (설교에 대한 관심)	우리 삶의 부재 또한 가끔 주목될 때가 있습니다.

<표 2>³²

복음으로 바꾸어 쓰기(Transposing Gospel)	
T (본문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서 그 혼인예식에 함께 계셨습니다.
S (설교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축제 (혹은 삶)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T (본문에 대한 관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S (설교에 대한 관심)	기적이 일어나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T (본문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S (설교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단순히 기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 그 목표이며 바로 그러할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표 3>³³

³¹ Wilson, *Imagination of the Heart*, 112-115.

³² Ibid., 116-118.

³³ Ibid., 118-121.

이러한 신학적 양극성에 대한 설교적 관찰을 바탕으로, 윌슨은 성경 본문과 오늘날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설교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이다. 그는 이러한 설교적 접근을 통해, 네 가지 장면 즉 첫번째 장면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Trouble in the Bible), 두번째 장면에서는 오늘날 세상 속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Trouble in the World), 세번째 장면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God’s Action in the Bible), 네번째 장면에서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God’s Action in the world) 주목하면서 설교를 작성한다.³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페이지(Page One)에서 설교자는 먼저 성경속에서 나타난 문제와 갈등 상황에 주목한다. 윌슨은 이 장면의 설교작성을 위한 몇가지 유용한 체크리스트들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서론은 흥미로운지, 첫번째 페이지가 하나의 성경본문에 잘 집중되고 있는지 (난해하거나 복잡하지 않게), 성서 주해적으로 적절한지,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러한 행동들이 이 후의 세번째 페이지에서 나올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잘 연결되는지, 그리고 본문에서 발견한 문제들이 설교속에서 잘 전개되고 전달되고 있는지 등이다.³⁵ 두 번째 페이지(Page Two)에서는 이제 성서 본문으로부터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그 설교적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청중들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 문제들과 갈등 상황으로 장면이 옮겨지게 된다. 즉 두번째 단계에서 윌슨은 오늘날의 문제들이 설교속에서 잘 기술되고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날의 현실을 설득력있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 첫번째 페이지와도 잘 연결되고 있는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잘 포괄하고 있는지, 두번째 페이지로 인해 청중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지 등이 고려된다.³⁶

이렇게 앞의 두 장면에서는 인간의 문제와 곤경 상황에 주로 그 설교적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 나머지 두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적 경험에 그 설교적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 즉 세 번째 페이지(Page Three)에서는 인간의 죄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말씀속에서 발견,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의할점은 이러한 전개가 주해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설교적 초점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말씀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번째 페이지의 문제와도 적절하게 잘 연결되는지 등이다.³⁷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Page Four)에서는 말씀속 세계를 넘어 오늘 우리의 일상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행동에 주목하며, 성경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이 마지막

³⁴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16-18.

³⁵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90-104.

³⁶ Ibid., 130-152.

³⁷ Ibid., 174-196.

단계에서 이 세상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잘 표현되고 있는지, 두번째 페이지의 문제들이 희망과 복음의 빛안에서 잘 해석되고 있는지, 절망한 자들에게 복음이 잘 제시되고 있는지, 청중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 등에 주목하게 된다.³⁸

네 페이지설교는 특별히 신학적 측면이 잘 고려되면서도 현실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복음적 은혜를 강조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과 성경본문, 신학적 접근에 충실하면서도 단순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교 스타일은 상당히 효과적인 현대 설교 방식의 하나로 제안된다.³⁹

2) 갈등에서 해결로서의 설교 (Preaching from Oops to Yeah)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메시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불러 일으키고, 메시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이후에도 잘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식 전개보다는, 설교학자 라우리(Eugene L. Lowry)가 제안하는 사건 중심의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 방식을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플롯방식은 라우리가 그의 책 『The Sermon』에서 효과적인 설교전략을 위해 제시하는 아래 그림과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4>⁴⁰

즉 설교의 움직임이 좌측에서부터 시작되어 우측으로 진행된다고 할때, 그의 플롯방식 설교는 위 그림의 구조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단계들로 진행된다.

갈등 (Conflict)	→	심화, 복잡화 (Complication)	→	급격한 변화, 반전 (Sudden Shift)	→	해소, 밝혀짐 (Unfolding)
------------------	---	---------------------------	---	------------------------------	---	------------------------

<표 5>⁴¹

이러한 플롯방식을 활용하여 설교를 전개해보자면 그 개략적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 예를 들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설교를 시작한다면, 흑 회중들은 늘 익숙한 메시지이기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거나 설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다소 떨어질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평형을 깨뜨려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인생의 문제앞에서 때때로 두렵고 떨때가

³⁸ Ibid., 199-232.

³⁹ 김운용, 『현대설교코칭』, 307.

⁴⁰ Lowry, *The Sermon*, 75.

⁴¹ Ibid., 81.

많이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시작한다면 청중들은 설교자의 진정성과 독특한 도입부에 호기심을 갖고, 메시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귀를 기울이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메시지의 평이성을 뒤엎는 접근으로부터 시작, 그 이야기를 점점 심화, 발전시켜나가면서, 나아가 최종적으로 회중들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메시지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라우리가 제안하는 플롯 설교의 구조이다.

- 1) 오프스(Oops): 메시지의 평이성을 뒤엎기(Upsetting the equilibrium)
- 2) 우(Ugh): 모순을 분석해 나가기(Analyzing the discrepancy)
- 3) 아하(Agh): 해결의 단초를 보여주기(Disclosing the clue to resolution)
- 4) 위(Whee): 복음을 경험하기(Experiencing the gospel)
- 5) 예(Yeah): 결과를 기대하기(Anticipating the consequences)⁴²

이처럼 플롯방식의 설교는 예를들면 영화, 드라마, 그리고 단편소설 등에서와 같이 네러티브 구조속의 갈등(Conflict)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의 해결(Resolution)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며, 가려움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긁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어떤 면에서 문제 해결식의 설교 양상을 띠는다고도 볼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플롯 방식을 따라 설교를 작성할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교를 구성할 것인가인데, 설교자의 설교작성방법은 먼저 본문을 선정한 후에 설교에서 전하려는 중심메시지 혹은 주안점을 잡는것이다. 둘째로 어떤 모순점, 혹은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 문제를 점차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구상하고, 셋째로 이러한 설교 포인트들을 어떠한 구성으로 갈등, 심화, 반전시켜나갈 것인지 구체화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회중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경험되고 할지 함께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다.⁴³

이와 같은 설교 스타일의 강점을 꼽으라면 역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갈등, 심화, 반전, 해소의 플롯전개로 익숙한 현대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 메시지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문제해결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단순예화로서 축소 사용되어왔던 성경의 내러티브성의 귀환, 마지막으로 탄탄한 구성력으로 오랜 여운과 기억에 남게 만드는 설교적 효과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설득력있는 메시지를 위해 짜임새 있는 전개를 바탕으로, 보다 더 성경적이면서도 탄탄한 신학적인 뒷받침이 또한 요구된다.

⁴²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22-26.

⁴³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267-268. 라우리의 설교학적 플롯의 특징과 장단점들 그리고 지속적 쟁점들의 논의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 할수 있다. 조영창, “라우리(E. Lowry)의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과 그 논쟁점들,” 『제 71 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9), 539-566; 김양일,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의 설교신학 연구: 설교 플롯(Plot)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49 (2018), 137-160.

3) 플롯과 움직임 설교 (Sermon as Plot and Moves)

설교학자 버트릭(David Buttrick)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종종 카메라와 같이 작동하는데, 좋은 설교의 형태는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설교이다. 즉 어떤 장면이 전개될 때마다 카메라 필름에 그 선명한 이미지를 담듯이, 오늘날 청중들은 말씀의 장면이 전개되는 움직임속에서 그들의 필름(의식)속에 말씀의 상(Image)을 담는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사진작가와 비슷한데, 설교자들은 일련의 설교적 장면들을 만들어 청중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서 그것을 통해 청중들의 의식(Consciousness)속에 무언가가 인식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특별히 기독교 설교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집중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오늘날 설교를 통해 현대 청중들의 마음의 건반을 누를 때 ‘실제 무엇이 그들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방식(Phenomenological method)이며, 그것을 움직임들(Moves)이라는 플롯구조에 담아 전개해나간다. 여기서 설교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청중들의 마음의 의식 속에 말씀의 이미지가 심어지도록 하는 것이다.⁴⁴ 김운용은 “버트릭은 설교형태와 청취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학적인 관계성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설교 과정 속에서 청중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관련하여 설교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말한다.⁴⁵ 즉 버트릭은 그간 전통적 방식들이 종종 간과해왔던 청중의 세계와 그 청중들의 의식에 대한 영역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함으로서 신선한 설교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설교자들이 설교 플롯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그는 4-6 개의 장면들(Moves)을 사용하여 설교의 최종 지향점인 ‘아하 포인트(Aha!)’를 향하여 집약적으로 나아가는 설교의 형식을 소개한다. 즉 A 에서 B 로, B 에서 C 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4-6 개의 다양하지만 통일성 있는 장면들로 설교를 구성한다. 또한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들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하나의 움직임은 약 4 분정도로 전개되며, 각 움직임들은 진술, 전개, 영상, 종결의 구조로 전개된다.⁴⁶

⁴⁴ Ibid., 324-325. 버트릭의 설교 신학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책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 and Structu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김운용, “데이빗 버트릭(David Buttrick)의 설교 신학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20 (2003), 285-311; 송관석, “데이비드 버트릭의 현상학적 설교학 연구: 설교의 ‘움직임’과 ‘구조’를 중심으로,” 「설교한국」 16 (2022), 39-75 등을 참조하라.

⁴⁵ 김운용,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에서의 설교와 형태(II),” 「기독교사상」 499 (2000), 152.

⁴⁶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27-328. 알렌은 보다 더 세부적인 관점에서 각 장면들을 (1)진술, (2)전개, (3)영상, (4)종결이라는 4 중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진술은 설교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이후 설교자는 진술의 내용을 보다 더 분명하게 전개하며, 전개후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혹은 묘사)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종결하므로 마무리한다. 알렌/ 허정갑 역, 『34 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147-148.

장면 A (4 분)	→	장면 B (4 분)	→	장면 C (4 분)	→	장면 D (4 분)	→	장면 E (4 분)
---------------	---	---------------	---	---------------	---	---------------	---	---------------

<표 6>

각 섹션들의 장면들을 통해 이 장면에서는 이러한 말씀의 의식이 청중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이러한 말씀의 의식이 청중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다채롭지만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게 전개되는 움직임들 가지고 최종 아하 포인트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교작성 예시를 잠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19-31 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위의 장면 움직임들로 구성해본다면, 부자의 등장 (장면 A), 나사로의 등장 (장면 B), 두 사람의 위치가 뒤바뀌는 현장 (장면 C), 부자가 간청하는 모습 (장면 D),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 (장면 E)으로 움직임이 구성될수 있을 것이다.⁴⁷

첫 장면 전개만을 간단히 예시로 들어본다면, “(진술) 오늘 호화로운 현실에 젖어, 영원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개) 이 사람에게는 여느 사람에게 처럼 부족한 것 하나 없어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사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완벽해 보입니다. 사실 어찌면 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닙니까? (영상)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산,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 어찌면 오늘 이 부자에게 있어 천국은 바로 사후가 아닌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 바로 지금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종결) 그의 인생은 오늘 오롯이 자기 자신과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장면 A)”

이러한 버트릭의 설교적 접근의 장점은 장면의 전개를 통해 청중의 의식가운데 무엇이 각인되고 일어나게 할 것인가 즉 설교자 외부의 청중의 의식세계까지 그 설교적 관심들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말씀을 강해하고 일방적으로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의 마음과 의식가운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버트릭의 고민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장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장면의 움직임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설교적 긴박감과 언어의 영상화는 영상과 미디어에 익숙한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일수 있다.

⁴⁷ 김운용,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II: 청중의 의식과 현상을 고려한 설교방법,” 『기독교사상』 46/9 (2002), 101.

V. 실천적 단계: 각 설교스타일에 따른 실제적인 설교 예시들

1) 네 페이지 설교 예시

월슨이 제시한 위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같은 본문으로 구체적인 설교문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⁸

첫번째 페이지(성경 속의 문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졌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의 제자들도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하인들의 움직임 또한 점차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음식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때문에 하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예식의 흥이 더 돋우어지는 가운데 여기 저기서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소리가 점점 더 들려오고, 하인들은 빨리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일 입니까? 더 이상 포도주 통에 가져다 줄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단 한 방울도 말이지요. 그토록 흥겨운 잔치 집에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난 것입니다. 주인은 울상을 짓고 있고, 하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던 그때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가 하인 몇몇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말이지요. 하인들은 어리둥절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말씀을 듣자 하인들은 눈이 더 휘둥그레졌습니다. ‘물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니?’ 다소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주인한테 가서 말을 하던가 하지, 왜 하필 힘도 없는 우리에게 와서 이런 황당한 일을 시키시는 것인가?’ ‘물을 가져다가 손님에게 주었다간 잔치 집에 난리가 날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인들의 마음은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세상 속의 문제): 우리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오는 때가 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로 항아리를 채워야지 물로 채우라는 황당한 주님의 음성은 비단 오늘 하인들에게만 들리는 것일까요? 어찌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귓가에도 때때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정 이 음성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가운데 맞는 음성일까요? 매일의 현실적인 문제들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⁴⁸ 아래 설교문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개론 수업에서 인용된 네 페이지 설교 샘플(본문: 요한복음 2 장 1-11 절, 제목: 물로 채우라)을 인용, 일부 수정하였다. 김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개론, 2012 년 10 월 25 일.

말기며, 기도하라는 음성은 마치 오늘 향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들릴때도 있습니다. 몇 칠 전, 동창회를 다녀온후 친구들의 자기 자랑하는 소리에 그만 질려서 왔다고 말하는 한 여자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SNS 시대속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은 그저 흔한 일이 지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자기자랑, 남편자랑, 자식자랑,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세상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속에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이는 어쩌면 오늘 향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포도주로 채워야할 향아리를 왜 자꾸 물로 채우라 하시는가? 하필 왜 나에게만 이런 엉뚱한 일을 시키시는가?

세번째 페이지(성경 속의 은혜): 예수님께서서는 하인들과 잔치자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눈이 휘둥그레진 하인들은 이제 향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아리에 말씀대로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향아리, 두 번째 향아리, 세 번째 향아리, 포도주가 아닌 물로 향아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물로 가득 채워진 향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연회장은 향아리에 뜬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의 긴장도 극에 달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었군요. 대단합니다.” 연회장의 이런 칭찬에 신랑의 기분이 날아갈듯 했고, 잔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흥에 겨워 최고의 잔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아리에 물을 채워왔던 하인들의 마음 역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워졌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놀라움의 기쁨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기쁨이,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기쁨이, 생의 본질적인 행복감이 그들의 마음깊은 곳에서부터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의 소리가 터져 나오자, 물로 향아리를 가득 채워왔던 하인들은 이 잔치의 주변인에서 이제는 이 기쁜 은혜의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기쁨을 선사해주셨던 것입니다.

네번째 페이지(세상 속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향아리에 채운 물도 은혜의 포도주로 바꾸신다.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지요.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르기보다는, 10 일 동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녀에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버지말대로 정말 10 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치 향아리를 물로 채워왔던 것이지요. 기도하는 과정속에서

놀라운 일이 실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간절히 기도한대로 누군가가 이 소녀에게 가지고 싶었던 강아지를 선물해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꼭 가지고 싶은 코트가 생겼는데, 저번의 경험으로 인해 소녀는 코트를 갖게 해달라고 엄마를 조르는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포도주가 아닌 물로 향아리를 다시 채워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코트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이 후로도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로 간구하며, 자신의 향아리를 물로 계속 채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물은 그녀의 간구처럼 포도주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떨때에는 소녀의 향아리에 그저 물만 가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소녀는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포도주 대신 물로 자신의 향아리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소녀가 장성한 후에 그녀의 향아리에 어느샌가 물도, 포도주도 아닌 어떤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향아리에 이제 물도, 포도주도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가득 채워져 계셨다고 하지요. 그녀의 향아리에 그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때때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인들이 경험했던 것 처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닐런지요?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향아리에 더이상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가득하게 된다면, 생의 마지막날 이 세상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향아리에 물을 한번 가득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채우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지시도록 말입니다.

2) 갈등에서 해결로서의 설교 예시

라우리가 제시한 설교방법론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설교문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 욥기 42 장 1-5 절, 제목: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첫번째(Oops): 메시지의 평이성을 뒤엎기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2 절)”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욥은 욥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주님은 다 하실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신앙고백이고, 그렇다면 왜? 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욥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때때로 전능하시기 보단 무능력한 분이 아니셨을까요? 교리적으로는 완전하셔도 적어도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무능해보이거나 고난가운데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두번째(Ugh): 모순을 분석해 나가기

사실 오늘 욥도 저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때때로 참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이 욥도 저희가 욥기서를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때로는 더 심각하게 회의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2 절의 말씀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보면 본다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나 과거 고난가운데 옴의 마음은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저의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남들이 모르는 고난, 남들이 모르는 문제, 어려움, 눈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의 인생가운데, 또 저의 자녀들가운데, 저의 가정가운데.... 하나님 진짜 저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나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하나님 저에게 분명 이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런 계획, 또 꿈, 기도가운데 분명하게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저의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까? 저의 삶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로만 가득합니까?’ 여러 각도에서 어쩌면 이해할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옴을 짓누르기 시작하자, 그의 신앙도 같이 짓눌려 버립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완벽했던 옴도 완벽하게 좌절하지다. 성경 최고의 신앙 인물중 하나로 평가받는 옴도 옴기 3 장 이후로부터 보면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후 그 고백드를 보면 이분이 과연 신앙의 모델인가 싶기도 합니다.

세번째(Agh): 해결의 단초를 보여주기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저는 아주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 인간의 삶을 미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거짓으로 윤색하거나 영웅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픈데로, 힘들면 힘든데로, 괴로우면 또 괴로운데로, 인간의 가장 솔직한 부분들, 연약함들을 아주 적날하게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예요.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오늘 사람들은 성경이 깊이있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와는 다르게 완벽한 신앙 모습만을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믿어야만 마치 영웅처럼, 그래야 교회도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오직 이것만이 믿음생활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때때로 좀 넘어지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려합니다. 그래서 또 때때로 좀 실수하면, 문제있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주님께도 아예 나아오지 않으려 합니다. 왜? 완벽한 신앙의 모습만을 신앙의 모습으로 오해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슈퍼 영웅이 아닙니다. 또 슈퍼 영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겐 오직 유일한 영웅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옴에게처럼 때때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한 눈물을 닦으십니다. 또 나의 마음의 고난, 상처, 때때로 아무도 이해못하는 나의 환경, 나의 삶,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예요. 그래서 옴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3 절)”

네번째(Whee): 복음을 경험하기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끄심가운데 유학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시간들도 참 많았었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들도 함께 기억이 납니다. 그 몇가지중 하루는 소소하게는 얼마안된 핸드폰을 도둑맞기도 하고, 또 한날은 산지 얼마안된 자전거를 주일아침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내가 좀 갑자기 다쳐 힘든때도 있었고, 저또한 대학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중의 하나는, 그 당시 저희 어린 딸아이가 이빨 대부분이 그리 좋지 않았었는데, 이것들이 부서지고, 구멍이 나더니, 저녁에 관리해줄때도 피가 계속 나고, 그래서 부득히 진료를 받았지만 수술견적이 유학생으로 감당할수 없는 비용이 나온 것입니다. 아이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고 이제,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나와 버스타는 곳까지 걸아가는데, 아빠로서 무능력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그 다음스텝에 대한 계산이 서지 않더라구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심은 알았지만 그러나 힘든 가운데, 현실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무능력하시거나 부재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한 찬양이 제 귀에 들려오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찬양을 잘 몰랐습니다만, 들려온 찬송가 가사가 타지에서 저의 온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예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찬송가 374 장)” 시간이 지나, 매일 저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저희의 상황을 아뢰기 시작하며, 저희 딸에게도 아직은 어리지만 상황을 설명시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 부족한 저는 다시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도 다시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여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저의 예상을 넘어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와 계획속에서 지도교수님을 통하여서, 또 현지 의사선생님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치료되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저희 가정 모두가 겸손히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섯째(Yeah): 결과를 기대하기

여러분, 오늘 저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은, 타이밍과 때는 저희가 다 알수도 없고, 또 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믿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의 좋은 아버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읊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고난속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죄업나이다 (5 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 플롯과 움직임 설교 예시

버트릭이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구체적인 설교문은 다음과 같다. (본문: 예레미야 24 장 4-9 절, 로마서 8 장 35-39 절, 제목: 유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⁴⁹

시작: 몇년전 잡지 「라이프(Life)」는 애처로운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중동 포로 수용소의 가시돋친 철조망뒤에서 있는 아랍인 전쟁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바지에 낡은 즈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주위 목걸이에는 그가 한때 살았던 집의 커다란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수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손을 무력하게 펼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 교회안에 메아리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배민들로서 세속세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유배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기울이십시오. 그가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장면 (진술): ‘유배’는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은유인것 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세속 세계에서 유배민들로 살고있습니다. (전개) 옛날에 미국은 참된 신앙인들에 의해 정착되었습니다-뉴잉글랜드에는 청교도들,스페인 플로리다에는 구교도들이 있었고, 이 두 지방사이에 있는 뉴욕시에는 네덜란드 개척파, 동부 펜실바니아에는 독일 경건주의자들, 버지니아주 전체에 걸쳐서는 귀족 영국 국교도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테판 카터(Stephen Carter)를 인용하면, 우리는 “불신앙의 문화” 속에 살고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종소리가 주일 아침에 울려 퍼졌으나, 오늘날 우리는 도시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브런치를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당신들의 훌륭한 할아버지는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에 의해 그의 발자취를 판단했으나, 지금 우리는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지키기위해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시대는 변했고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들 자신을 설명하기위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영상) 브로드웨이에서 토니 쿠쉬너(Tony Kushner)는 미국의 종교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미국에 다시오실 것인지 아닌지, 언제 다시 미국에 오실것인지를 궁금해 하면서 커다란 성경책 크기의 책을 짊어지고 있는 한무리의 늙은 천사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결) 유배. “기독교인들은 세속 세계에서 어떻게 살수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면 (진술): 주변에 있는 소리들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교회들안에 있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고있습니까?” 조언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개) 어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종교적 부흥이라는 밝은 꿈을 뒤쫓고

⁴⁹ 알렌/ 허정갑 역, 『34 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149-155. 이 책에서 제시된 버트릭의 설교문 전문을 인용하였다.

있습니다. 때때로 「타임」지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신앙과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흥은 남부지역에서조차도 더이상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 세속주의자들로 부터 땅을 되찾기위해 투쟁적인 기독교 연합에 가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도 막대한 국방 비용은 찬성하는 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반여성주의자이면서, 사형제도를 강력히 찬성하기까지 하는데, 그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고귀한 삶을 위해 그들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날 생존은 게임의 이름일 뿐입니다. (영상) 여러분은 몇달전 둔스버리(Doonisbury) 만화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맨앞자리에 두 명의 작고 늙은 숙녀들과 그들 뒤에 노쇠한 늙은 신사만이 앉아있고, 젊은 사제는 설교단에서 팔을 높이 올린채 “우리의 시대는 다시 올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의 텅빈 고딕양식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것 같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미소를 머금습니다. (종결) 우리 자신의 땅에서 추방되어 우리는 이방세속세계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번째 장면 (진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개) 들으십시오. 집을 짓고 정착하십시오. 정원에 씨앗을 심고 그것들을 추수하십시오. 부인을 얻으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적고있습니다. 아이들, 손주들, 증손주들을 기르십시오. 외관상 유배지에서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창조-인간의 즐거움에 대해 선한것들로 가득찬 세계-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르고, 그땅의 추수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기독교의 고립된집단, 심지어는 미국의교회 밀집 지역(Church Street)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지지하게 할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유배지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인간과 인간이 함께 말입니다. (영상) 새로운 이웃이 최근에 우리 인근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떤 부인은 몇년도 되지않았는데 너무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살았던 모든 집들의 사진을 담은 앨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동일한 오래된 테이블과 꽃정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나의 부엌테이블로 이사를 하고나서 나의 정원을 가꿉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짓고 당신의 밭을 가꾸고, 그땅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예레미야는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결) 예레미야는 20 세기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 “인간세계와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창조는 모든곳에,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장면 (진술): 자, 이제 멈춰서 한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의 신앙을 부추깁니까?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전개) 여러분은 그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다고 들었습니까? “내가 유배시켰던 모든 유배민들에게” 보내는 주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나, 하나님이 유배시켰던 유배자들에게.” 우리는 마치 세속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워진 것처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배를 실현하는데 처음부터 쪽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세 교회의 승리주의(triumphalism)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방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혼란, 즉 불신앙이라는 이상야릇한 혼동으로 끝날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아마도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세속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입니다. (영상) 따라서 초창기 장로교지도자 브라운 박사는 그의 노년에 갓시작한 NCC(National Council of Churches)앞 강단에 서서 그의 신앙에 대해 외쳤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엄청난 해류가 모든 만물의 표면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쪼록 세속주의는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19 세기중반에 그것은 ‘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는 퍼져나가서 유럽전역에 있는 교회들은 비어있고 현재 미국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속세계는 과학, 산업, 노동조합, 대학교, 정치적인당, 교회에 의해 형성 되어왔습니다. (종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배보냈던 유배민들에게” 말입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세속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다섯째 장면 (진술): 따라서 우리가 세속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수 있는것들을 추측해보십시오. 우리의 소명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개) 예레미야는 “그 도시의 번영을 추구하라”, “네가 있는 그 땅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노래합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는 인간세계에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아픈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면서 세속적인 세계를 섬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학교 클래스에 모든 시간으로 당신 자신을 헌신할 것이아니라 가난한 지역에있는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또한 애써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위한 멋진 학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야 하기때문에 단지 교회지도자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인 행동을 함께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머리위로 신앙이라는 덮개를 뒤집어쓴채, 우리의 성경을 꼭 부여잡고 안전하고, 달콤하고, 은신처된 교회로만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우리가 살고있는 세속세계에 선포해야만합니다. (영상) 몇년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의해 그려진 커다란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중앙에는 한가운데 접어넣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는 웨이터들처럼 서로서로를 향하여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는 여러 쌍의 사람들을 그린 추가모형의 커다란 그림(stick figure)들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제목이 크레용으로 적혀있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모든 이교도지역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내에 있고 모든 순간 이웃들에게 유용합니다. (종결) “도시의 번영을 위해 일하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침)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세계에서, 유배지에서 신앙을 가지고(신앙안에서)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고, 모두의 번영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엄청난 해류처럼 우리 삶을 둘러싸고있는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떡을떼고, 잔을 나누면서-잔치를 베풁시다.

VI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하나님께서 여러 성서 기자들과 다양한 형태들을 사용하셔서 각 시대의 청중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하셨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들려주어야 할 메신저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현대 강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설교적 노력들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기독교 설교 역사속에서 초기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설교 형태들로부터 다양한 현대 설교 형태들까지 그 설교적 노력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또한 전통적 설교패러다임들과 현대적설교 패러다임들 각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도 함께 고찰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실천적인 관점에서, 설교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현대적 설교 형태들 중 세가지 정도의 효과적인 설교 스타일(네 페이지 설교, 갈등에서 해결로서의 설교, 플롯과 움직임 설교)에 주목, 소개함으로써, 그 실제적인 예문들과 함께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해볼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시대 설교자들이 현대 청중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김양일. “유진 라우리(Eugene L. Lowry)의 설교신학 연구: 설교 플롯(Plot)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49 (2018), 137-160.
- 김운용. “데이빗 버트릭(David Buttrick)의 설교 신학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20 (2003), 285-311.
- .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에서의 설교와 형태(II).” 「기독교사상」 499 (2000), 152.
- . 『현대설교코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 .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 II: 청중의 의식과 현상을 고려한 설교방법.” 「기독교사상」 46/9 (2002), 101.
- 송관석. “데이비드 버트릭의 현상학적 설교학 연구: 설교의 ‘움직임’과 ‘구조’를 중심으로.” 「설교한국」 16 (2022), 39-75.
- 정재웅. “강해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의 이분법을 넘어서: 최근 북미현대설교학을 중심으로.” 「제 36 회 한국설교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2023), 36-39.
- 조광현. “신설교학: 개별 청중으로 방향 전환.” 「갱신과 부흥」 31 (2023), 307-316.
- 조영창. “라우리(E. Lowry)의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과 그 논쟁점들.” 「제 71 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9), 539-566.
- 로날드 알렌/ 허정갑 역. 『34 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 Allen Jr., O. Wesley.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In *The Renewed Homiletic*, edited by O. Wesley Allen Jr., 1-18. MPLS, Minnesota: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2010.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New York: Harper, 1944

Buttirck, David. *Homiletic: Move and Structu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Campbell, Charles 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Eugene: Wipf & Stock Publishers, 2006.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Revised and with New Sermon*.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01.

Davis, Henry Grady.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8.

Edwards, O.C.,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04.

Lischer, Richard. *The Company of Preachers: Wisdom on Preaching, Augustine to the Present*. Grand Rapids: Eerdmans, 2002.

Lowry, Eugene L. *The Homileit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Mitchell, Henry H. *Bla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Old, Hughes Oliphant.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s. 1-7. Grand Rapids: Eerdmans, 1998–2010.

Rice, Charles L. "The Preacher as Storyteller."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1, no. 3 (Spring 1976): 182-197

———. "The Preacher's Story." In *Preaching the Story*, coauthored by Edmund A. Steimle, Morris J. Niedenthal, and Charles L. Rice, 19-36.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Ronald J Allen. *Patterns of Preaching: A Sermon Sampler*. St. Louis, MO: Chalice Press, 1998.

Wilson, Paul Scott. *A Concise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 *Imagination of the Heart: New Understandings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Abstract

Exploring Effective Preaching Styles: Focusing on Four Pages of the Sermon, Preaching from Oops to Yeah, and Preaching as Plot and Moves

Sungwoo Andrew Cho

God is the effective communicator, employing diverse forms and genres from multiple writers for the Scripture. These encompass legalistic discourse, poetic expression, prophetic revelation, narrative storytelling, correspondence, and more. His communication transcends rigid boundaries, captivating audiences with a rich variety of communicative styles. However, it is disheartening to witness certain messengers of the Scriptures confining themselves to narrow communication formats, overlooking the depth and diversity found in scripture. In response, this research endeavor seeks to delve into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with a specific focus on improving contemporary pulpit communication among messengers of the sacred text, including pastors, missionaries, seminarians, and educator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research conducts a concise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ristian sermonic style, tracing its development from the early church to present-day homiletical approaches. This exploration involves an examination of both classical sermonic frameworks and contemporary homiletical approaches, through the lens of sermonic style. Moreover, the study conducts an evaluation of the advantages and drawbacks inherent in both traditional and modern preaching paradigms. Finally, it offers pragmatic insights by dissecting three impactful preaching styles: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Preaching from Oops to Yeah*, and *Preaching as Plot and Moves*. These styles are accompanied by concise implementation guidelines and sermon scripts designed to empower preachers in their communicative endeavors.

Key Words

Effective preaching styles, concise history of Christian sermonic style, four pages of the sermon, preaching from oops to yeah, and preaching as plot and moves